

안상면서 불당배 의농 피하더니
89. 4. 7

여고생 차에 치여 숨져

5일 저녁 7시50분께 서울 강동구 풍납동 122 올림픽대로 천호대교 부근에서 불량배의 희롱을 피해 달아나던 문경숙(17·상일여고3)양이 잠실에서 암사동쪽으로 가던 서울4로9505호 로얄프린스 승용차(운전자 강대길·41)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.

친구 박지현(16)양에 따르면 이날 간오 미술학원에 다니는 나

자친구 2명과 함께 학원강의가 끝난 뒤 한강고수부지로 바람을 쐬러 가던중 올림픽대로에서 불량배 3명이 남자친구 2명과 시비를 벌이는 사이 나머지 1명이 자신과 문양에게 “나도 고등학생이다. 함께 놀자”고 해 뿌리치고 올림픽대로를 건너다가 앞서 가던 문양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는 것이다.